

01. ⑤ 02. ⑤ 03. ② 04. ① 05. ④ 06. ① 07. ② 08. ④ 09. ⑤ 10. ③
 11. ③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② 17. ④ 18. ① 19. ④ 20. ③

1. 실천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특징 비교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나’는 실천 윤리학, ‘어떤 사람’은 기술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실천 윤리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목적이라고 본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도덕 관행에 관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기술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목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⑤는 실천 윤리학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 입장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도덕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술 윤리학 입장이다.
- ② 도덕 언어에 함축된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은 메타 윤리학 입장이다.
- ③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 입장이다.
- ④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장자와 공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장자, 을은 공자이다. 장자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을 따르는 것을 중시하였다. 공자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분별적 지혜를 중시하였다. ⑤는 장자가 긍정, 공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②, ③, ④ 모두 공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 배려 윤리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나딩스의 주장이다. 나딩스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구체적 맥락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다(ㄱ).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는 배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려자와 피배려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나딩스는 보편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무론을 비판하며, 도덕적 의무감과 법칙이 도덕적 행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ㄷ. 나딩스는 배려는 정의와 권리가 아니라 공감과 책임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4. 벤담의 윤리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벤담의 주장이다.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옳은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의 총합이 극대화되는 행위라고 보았다. 따라서 로봇 개발자 A에게 로봇 개발이 가져올 해악과 편익의 총합을 계산하여 결정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벤담은 문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의 이익을 한 사람 이상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은 물론 어떠한 타인의 이익에 가중치를 두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 ③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는 없으며, 오직 양적 차이만이 있다고 보았다.
- ④ 벤담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 ⑤ 벤담은 문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5. 종교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한스 쿡의 주장이다. 쿡은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요청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쿡은 단일한 보편 종교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② 쿡은 종교 간 평화를 위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③ 쿡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다른 종교적 견해를 비판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쿡은 국가 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 간 평화가 요청된다고 보았다.

6. 유교와 불교의 죽음관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불교 사상이다. 유교에서는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도 맞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유교에서는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라는 공자의 입장에 입각하여, 죽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인륜적 삶에 충실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 ③ 불교에서는 죽음을 고통으로 보고, 연기를 깨달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⑤ 유교와 불교는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7.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과학자의 내적 책임만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을은 과학자의 내적

책임 뿐 아니라 외적 책임, 즉 사회적 책임도 인정하는 입장이다. 갑은 과학자에게 외적 책임, 즉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경우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지 못해 연구 활성화가 저해된다고 본다. 따라서 ②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④, ⑤ 을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③ 갑과 을은 과학자 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8. 시민 불복종에 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롤스는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가능하며,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L). 롤스는 여러 시민 불복종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이를 통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고 보았다(ㄱ).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싱어는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시민 불복종의 수단은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요청되는 것이 아니다. 롤스는 다수의 정의감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심각한 부정의를 발생할 때 시민 불복종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9. 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을은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갑은 복제 배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을은 복제 배아를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지닌 존재라고 본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복제 배아가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지의 여부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④ 갑과 을이 긍정으로 대답할 질문이다.

10. 환경 윤리에 대한 레오폴드, 테일러, 레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레오폴드, 을은 테일러, 병은 레건이다. 레오폴드와 테일러는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반면 레건은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고 볼 뿐, 식물과 비교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는 입장은 아니다.(L). 테일러와 레건은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의 선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개체론의 입

장이다. 반면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선이 개체의 선에 우선한다고 보는 전체론의 입장이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보전을 위한 인간의 개입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테일러는 생명 개체의 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였다.

ㄴ. 레오폴드는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 예를 들어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 등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11.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절용을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보았지만, 백성 통치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정약용은 청렴을 선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으로 보았다. 정약용에게 청렴 실천은 사덕을 구현하는 바탕이 된다.

② 정약용은 사치와 낭비와 탐욕을 없애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④ 정약용은 절용의 실천을 통해 애민(愛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정약용은 공직자의 청렴과 절용의 실천은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안정된 사회를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12. 교정적 정의에 대한 칸트, 베카리아, 벤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병은 벤담이다. 베카리아와 벤담은 형벌의 목적을 범죄 억지에 두고 있다. 하지만 베카리아와 벤담은 형벌 그 자체를 고통이라고 보고, 형벌을 범죄 억지에 충분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베카리아와 벤담의 입장에서 범죄 억지력이 있으면서도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칸트는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격성을 여전히 지닌다고 보았다.

② 베카리아는 일반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 유사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지하는 것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도록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벤담은 형벌의 목적을 공동체의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벤담은 모든 형벌은 폐해이고, 형벌 그 자체는 악이라고 보았다.

④ 공적 정의를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라고 본 사상가는 칸트가

아니라 베카리아만의 입장이다.

13. 유행에 대한 지멜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지멜의 주장이다. 지멜은 하류 계층은 상류 계층에 동화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욕구는 유행을 확산시킨다고 보았다(ㄱ). 지멜은 상류 계층은 유행을 창출함으로 상류 계층 내부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한편, 하류 계층과의 차별성을 부각한다고 보았다(ㄷ). 지멜은 하류 계층이 상류 계층의 유행을 모방하게 되면, 상류 계층은 하류 계층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새로운 유행을 창출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ㄴ. 지멜은 유행이 상류 계층에서 발생하는데, 하류 계층이 이 유행에 동화되면 상류 계층은 새로운 유행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지멜은 유행을 통해 표현되는 양식은 끊임 없이 변화를 겪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멜에게 있어 유행은 항구적이지 않다.

14. 저작권 문제의 이해

정답 해설 : 칼럼은 정보 독점으로 인해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카피레프트라는 정보 공유 운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칼럼에 따르면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카피레프트는 가능해진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칼럼에 따르면 카피레프트는 정보 공유 확대를 중시하고 있지만, 저작자의 저작권을 부정하거나 폐기하지는 않는다.
- ③ 칼럼에 따르면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의 상업적 거래를 활성화하지는 않는다.
- ④ 칼럼에 따르면 카피레프트는 정보 공유 운동으로 정보의 개방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정보의 폐쇄성을 조장하지 않는다.
- ⑤ 칼럼에 따르면 카피레프트는 정보 접근 권한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자는 운동이다.

15. 분배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사회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 보고,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더 적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의 이익에 공헌한다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된다고 보았다(ㄴ). 롤스는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고 보았다. 즉 당사자들은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한다고 본 것이다(ㄷ). 노직은 역사적 소유 권리를 말하며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은 과거 상황이나 과거 행위에 의해 창출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롤스와 노직은 공정한 분배 여부는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른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와 노직은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보지 않았다.

16. 칸트와 갈통의 국제 평화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갈통이다. 칸트는 단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평화 조약과 달리,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추구한다고 보았다(ㄱ). 갈통은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보았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칸트에 따르면 영구 평화를 위해 요구되는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과 같은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ㄹ. 갈통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의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칸트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17.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싱어는 모든 사람이 세계의 모든 이의 복지에 동일한 책임을 가진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어떤 사람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함이 없이 도울 수 있을 때에 도울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할 때 인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자국민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원조함으로써 기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정당한 제도들을 실현하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고통받는 사회가 정당한 제도, 즉 합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인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에 원조의 목적을 둔다.

③ 싱어는 전 세계는 그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음식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풍요로운 국가와 풍요로운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기아는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롤스는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보지 않았다. 때문에 원조의 목표를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에 두지 않았다. 싱어는 인류의 복지를 증진한다면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부정의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18. 통일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지닌 상대적 특징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통일을 통한 인도적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Y)'는 높고, '통일이 국제 평화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따라서 ㉠이 옳은 위치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 ㉣, ㉤ 모두 옳은 위치가 아니다.

19.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홉스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루소, 병은 홉스이다. 루소는 국가 구성원인 개인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법의 제정자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홉스는 개인은 법을 따르는 자이고, 법의 제정자는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라고 보았다. ㉣는 루소가 홉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의 유익함을 고려하는 정치 체제를 옳바르다고 보았다. 루소는 국가의 행위는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다. ㉠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루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 아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국가 밖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보고, 국가 밖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짐승 아니면 신이라고 보았다. ㉡는 루소와 홉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 아니다.

㉢ 홉스와 루소는 자기 보존을 사회 계약의 목적이라고 보고,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은 국가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은 홉스가 루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 아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자연적 의무라고 보았다. 홉스는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계약에 의해 발생된 의무라고 보았다. ㉤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홉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 아니다.

20. 플라톤의 도덕주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예술 작품 속에 사람의 선한 성품을 표현해냄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플라톤은 예술가가 예술을 위한 예술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플라톤은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플라톤은 예술가가 선한 내용만을 그려야 하고, 추한 모습은 표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플라톤은 예술가가 사물을 모방할 수 있을 뿐, 이데아를 새롭게 창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